

# 총선 시계 짹짹...여야 '명운' 건 선거전 달아올랐다

### '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5~6일 사전투표 '1차 분수령' '정부 견제' > '정부 지원' 여론 속 의정 갈등·투표율·막말 '변수'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운을 건 여야의 선거전이 달아올랐고 있다. 지난 31일 기준 254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듯한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46명)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조국혁신당이 3파전 양상을 보인다. 남은 기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전개

와 막말 논란 등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율도 승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정권 심판'으로 각각 규정하며 건곤일척 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선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 심판이 민생"이라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동시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퇴, 의제 제한 없는 의정 대화를 대통령실에게 건의하는 등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가공식품 등의 부가세 한시 감면 등을 추진하며 민생 드라이브도 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종섭-황상무' 이슈에 이어 '대과 발언' 논란 등으로 정권 심판 민심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정권 심판론에 더욱 불을 지필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을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다"며 "정부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심판론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말 한마디에 자칫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경계

심에 '야권 200석' 같은 낙관론이나 '설화' 차단에도 애쓰고 있다. 양당 모두 '원내 1당'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지역구 254석 중 국민의힘은 80곳 인פק, 민주당은 110곳 이상을 현재 우세 지역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목표 의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과반(151석) 의석이 목표다. 1차 분수령이 될 사전투표(5~6일)는 당장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 선거에 21개 정당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이 254곳 전 지역구에, 민주당은 246곳에 후보를 냈다. 녹색정의당은 17명, 개혁신당 43명, 새로운미래는 28명의 지역구 후보를 등록했다. 무소속 출마자는 58명이다.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

대표 후보를 냈다. 거대 양당은 선거법상 금지 규정을 피해 가며 비례정당과 '한 몸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 함께 "국민만 보고 찍으세요" 선거운동을 펼치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연합과 '더불어 플랫폼' 구호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현 의석 6석 유지를 목표로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성평등·소수자 등 이슈를 부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며 진보 진영 지지자를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제3지대에 속하는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호남,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고 '양당 심판론'을 내걸어 정당 투표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가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기회발전 특구(여수 묘도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 협약식'에 참석. (주한양, 린데코리아주, 동북아엘엔지허브티미널), ECOLOG, 묘도열병합플 등 5개 기업과 3조9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전남도,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잔결음

### 에코로그 등 5개 기업과 3조9000억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키로

전남도가 지난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9200억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산까지 이뤄져 전남에 전주기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클러스터에 투자할 예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티미널에서 LNG 저장 및 공급 시설을 신설해 수요

기업에 제공하고, 린데코리아주는 LNG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 뒤 에코로그는 이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한다. 생산된 수소는 묘도열병합발전소에서 수소 혼소 LNG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고, 묘도연료전지발전소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될 열 및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묘도에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수소산업 핵심 생태계가 조성돼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전후방 산업 집적화에 따라 기업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자할 예정인 기업 가운데 린데코리아는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회사다. 에코로그는 글로벌

별한 해운 회사로서 이산화탄소 수집 및 운반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다. 이들 기업 유치를 성공함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이후 성공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한발 앞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광양 수소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클러스터가 조성될 묘도에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산업용지도 갖추고 있어 향후 첨단·신성장 관련 기업 투자유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전남에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가 조성돼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조국 "광주시민의 뜨거운 지지 감사"

### 서구 풍암호수공원 찾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30일 비례대표 후보들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조국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광주시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행사를 열고 "광주시민들께서 장당 선언 초기에는 '잘 견뎌주세요 고맙다', '마음이 짝하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한 뒤로는 '속이 시원하다', '계속 제대로 싸워라'는 말씀을 하신다"며 "4월3일이 돼야 겨우 한달이 되는 신생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지지해 주시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한 유세가 금지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큰 목소리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범죄자 연대와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이라고 정의한 데 대해 "윤석열, 김건희, 한동

훈이 범죄자 연대라는 자백인가"라며 "선량한 시민은 여기 계신 분이고 우리가 심판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인데 (자신들이) 범죄자 연대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의 방문에 풍암호수공원은 지지자들로 붐볐다. 지지자들은 저마다 '조국'을 연호하거나 '9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을 외쳤다. 조 대표는 광주시민 지지의 이유를 묻는 말에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광주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분노와 실망, 울분이 쌓여있었다"며 "조국혁신당의 등장 이후로 '저 당을 밀어주면 제대로 한 몫하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조 대표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호남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총선에서 내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유권자들의 애국심과 마음이 4월10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지난 30일 광주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도  
전국민의 경제부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